

다니엘서 - 번호 189

파니움 전투의 예언적 태피스트리: 일요일 법령의 서막

Jeff Pippenger

2024-04-19

파니움 전투는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었다. 일요일 법령 직전에, 1989년 '끝의 때'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 이후로는 일곱 번째(다섯 번째)이기도 하며,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이고,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며, 또한 세계주의의 전 영역을 들끓게 하는 여덟 번째 대통령이 배도한 개신교를 이끌어 세계주의의 '워크이즘'인 그리스의 판 종교를 물리칠 것이다. 11절과 12절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역사는 16절의 일요일 법령에서 결론을 맺는다. 15절은 파니움 전투이며, 파니움 전투는 제3차 세계대전인 악티움 전투로 이어진다.

'큰 지진'의 때, 곧 16절의 일요일법령 때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미국을 공격하여 열국을 분노케 하고 국가적 파멸을 초래한다. 그 공격에 앞서는 것이 파니움 전투이다. 일요일법령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이 성립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의 세력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 손을 깊은 구렁 너머로 내밀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그리고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서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격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기이한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그때 교황권의 치명상이 완전히 치유되어,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마침내 그 끝에 이를 때까지 절대 권세로 통치한다. 로마가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할 때 비로소 통치하게 되는데, 이는 다니엘 8장 9절과 11장 16-19절에서 이교 로마로 묘사되어 있듯이 그러하다. 교황 로마가 세 뿔을 제거했을 때 1,260년 동안 절대 권세로 통치했으며, 마찬가지로 이교 로마도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세 번째 장애물인 이집트를 정복하자 360년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했다.

문법에서 접미사 "ium"은 단어의 끝에 붙어 장소, 상태, 또는 어떤 것의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든다. 이는 기술 및 과학 용어의 형성에서, 특히 화학과 생물학에서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어: "stadium"은 운동 경기나 기타 행사를 위한 장소를 가리키고, "aquarium"은 수생 생물이나 식물을 전시하기 위해 기르는 장소를 가리키며, "gymnasium"은 신체 운동이나 훈련을 위한 장소를 가리킨다. 과학 용어에서 "ium"은 흔히 화학 원소나 화합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특히 그 원소나 화합물이 분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sodium"은 기호 Na를 가진 화학 원소를, "calcium"은 기호 Ca를 가진 화학 원소를 가리킨다.

이교 로마의 절대적 통치의 시작은 악티움 해전에서 이루어졌고, 파니움 전투는 악티움으로 대표되는 전쟁의 문을 열었으니, '줄 위에 줄'로 볼 때 악티움은 교황권이

다시금 세계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때의 일요일 법을 나타낸다.

악티움은 해전이었고 파니움은 육상 전투였으므로, 이 두 전투의 연결은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전 세계적 전쟁을 나타낸다.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해전인 악티움은 또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는 "네가 본 물들, 곧 그 음녀가 앉아 있는 곳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기 때문이다. 파니움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정치적 전쟁과 결합된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

"pan"이라는 명사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판은 목동과 양 떼, 전원 음악, 그리고 황야의 신이다. 그는 종종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모습으로 묘사되며, 음악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만의 거대한 드라마의 절정으로서 사탄 자신이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구주의 재림을 그 소망의 완성으로 바라본다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 사탄은 눈부신 광채를 띤 위엄 있는 존재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와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13-15." 대쟁투, 624.

판은 목자의 신이며, 참된 목자를 사칭할 것이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것은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그 칙령'에서 우리가 그때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왔고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pan"이라는 단어는 또한 튀기거나 굽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얇고 가장자리가 넓은 조리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최후의 전쟁은 영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그곳은 깃발처럼 높이 들려진 거룩한 산이며,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도피해 오는 산이다. 그때 모든 민족이 '잔'(pan)으로 규정되는 영적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의 말씀의 경고라.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속에 그 영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방 모든 백성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포위할 때에 그리하리라.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떠메려 하는 자마다 찢기리라. 비록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스가랴 12:1-3.

예루살렘은 또한 가마솥이기도 하다. 그곳은 극이 벌어지는 솥이기 때문이다. "caldron"은 요리용 큰 솥을 말한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 성에서 악을 꾀하고 사악한 모략을 베푸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집을 지으자.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예언하라, 인자야. 그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게 말씀하시되,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성에서 살해한 자들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그 거리들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 가운데 쓰러뜨린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이 바로 고기요, 이 성이 가마이지만,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오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리라. 너희는 칼에 엮드러질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성이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도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법도를 시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관습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에스겔 11:2-12.

영어에서 접두사 "pan"은 "보편적", "전체", 또는 "전반에 걸친"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panorama"는 어떤 지역의 넓거나 포괄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pantheism"은 우주가 신성하다는 믿음을 뜻하며, "Pan-American"은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가 관련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pan"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가리킨다.

사탄은 사소한 질문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 그들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하고 또렷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원수는 온 세상을 울무에 빠뜨리려 계획하고 있다.

소위 기독교 세계는 위대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은 교황권을 본받아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3권, 392.

명사로서 "act"라는 단어는 "입법 기관이 제정한 공식적인 서면 결정 또는 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그토록 저버려 일요일법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행위로 교황권과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증언, 5권, 712.

소위 기독교 세계는 위대한 행동들, 또는 막들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모든 민족(pan)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act"라는 단어는 연극, 영화 또는 다른 공연의 한 막이나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며, 보통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들의 묶음으로 특징지어진다. 동사로서의 "act"는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또한 연극이나 영화에서처럼 가장하거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다. 그 배우들, 곧 그 거민들은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서 자기 몫을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류 대중 가운데 일치가 없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반역한 백성들에 관하여 그분이 가지신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한동안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오는 한 권세가 드라마의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을 일으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오며, 비밀 결사로 서로 결속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것이다. 결탁하려는 열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원인 뒤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최악은 거의 그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류에게 닥칠 것이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세상에 엄청난 놀라움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9월 10일.

파니움과 악티움은 제3차 세계대전을 상징한다. 그 전쟁에서는 그리스의 염소 신 판으로 표현되듯 초자연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전쟁은 '행위'로서 일요일 법의 집행과 연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위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들'로 규정되는데, 그것은 일요일 입법을 강제하는 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련 기간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들에 벌어지는 복음의 드라마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파니움과 악티움이 예언적으로 결합하는 전투에 앞서, 다니엘서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군대가 이미 일으켜져 있을 것이고, 그들의 깃발, 곧 군기가 그때 들어 올려질 것이다. 'ensign'의 기본 의미는 군대의 깃발이다.

액트와 팬은 악티움과 파니움을 가리키며, 놀라운 언어학자가 두 전투의 지리, 명칭, 그리고 역사를 지배했다. 이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직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파니움 전투는 기원전 200년에 일어났고, 16절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을 밝힌다.

기원전 200년부터 63년까지의 시기로 상징되는 말세의 역사 속에서,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역사로 상징되듯이,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 형성이 완성될 것이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최종적 움직임의 시기 이전에, 기원전 167년의 모던 반란으로 상징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반란은 그리스가 강요한 종교에 맞선 반란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반란은 기원전 164년의 성전 재봉헌으로 상징되는 이정표로 이어질 것이다.

기원전 164년은 하루치의 거룩한 기름이 여드레 동안 지속된 기적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념된다. 따라서 기원전 161년보다 앞선 기원전 164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배도한 자들을 위해 이루어진 사탄적인 기적을 가리킨다. 그 기적은 하루가 여드레를 만들어 낸 것으로 표현되며, 그 첫날의 기름이 온 여드레를 지탱했다. 그 기적은 일곱에 속한 한 부분 위에 임했으며, 이 이정표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의 수수께끼가 배도한 공화주의의 별과 배도한 개신교의 별 둘 모두 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 속에 놓여 있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이전에 나타나는 사탄의 기적은 그리스 신 판과 연관되어 있다. 파니움 전투가 트럼프와 배교한 개신교에 의해 벌어져 승리하게 되면,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버려 그때 인류에게 쏟아질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큰 공포가 인간에게 닥칠 것이다. 끝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압도적인 기습처럼 곧 세상에 들이닥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십사만 사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인봉이 풀려 드러남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인침 받은 자들이다. 그 계시는 여러 구체적인 진리의 줄기를 포함하며,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거룩한 교훈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은 모든 인간 언어를 주관해 오신 놀라운 언어학자이시다. 바벨탑에서 혼란을 쏟아부으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갖가지 언어들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제시된 숫자들과 그분의 온 창조 세계 안에 숫자들을 통해 비밀들을 감추어 두신 놀라운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다. 그분은 땅을 창조하셨고 홍수 이후 지구의 지리적 형태를 주관하셨으며, 그 결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진리들'을 이루는 다양한 예언적 지리들이 형성되었다. 십사만 사천은 그 밖의 것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을 대표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1-3.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Works and Days"와 여러 다른 고전 자료에서 주로 전해진다. 이는 분명히 에덴동산에서의 이브의 경험을 바꿔 말한 것이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다. 이 이름은 '모든'을 뜻하는 그리스어 "pan"과 '선물들'을 뜻하는 "dora"에서 왔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를 뜻한다. 이브는 교회의 상징이며,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신들이 만든 첫 번째 인간 여성이었다. 신화에 따르면, 그녀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명령으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으며, 이는 인류를 벌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각 신들은 판도라에게 미모, 우아함, 지성, 매력 등 여러 선물을 주었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항아리(후대의 전승에서는 상자로 바뀌었다)를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브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만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판도라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항아리를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 갇혀 있던 온갖 악과 고통, 질병이 세상으로 풀려나 인류에게 고통과 불행을 퍼뜨렸다. 그러나 항아리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바로 희망이었다. 이 신화의 어떤 전승에서는 판도라가 재빨리 항아리를 닫아 희망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다고도 하고, 다른 전승에서는 희망 역시 밖으로 나와 역경에 직면한 인류에게 낙관과 회복력의 한 줄기 빛을 주었다.

파니온 전투는 임박한 일요법령에서 악티움 해전과 합류하며, 그 임박한 일요법령은 에덴동산의 시험으로 예표되었다. 에덴동산에서 그 시험은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시험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와 대면해야 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시험은 일요법령이라는 마지막 시험을 예표한다. 하와는 그 첫 시험에서 실패하여 인류에게 재앙의 문을 열었는데, 이는 판도라의 신화에 나타난 바와 같다.

파니온 전투가 악티움 해전과 결합될 때, 에덴동산에서 표상된 시험이 온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세상에 주어지는 소망은 온 세상(파노라마)에 보이도록 높이 들린 기치이다.

세상의 모든 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기를 세울 때에 너희는 보라.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들으라. 이사야 18:3.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다; 그 배우들, 곧 그 거민들은 마지막 위대한 드라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류의 거대한 대중 사이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혼란과 무질서의 요소들이 득세하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나온 권세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위대한 장면들을 초래하려고 역사하고 있다—그리스도로 가장하여 오는 사탄이, 비밀 결사에 자신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고 있다. 연합에 대한 열망에 굴복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오늘날만큼 이 메시지가 더 큰 힘으로 적용된 적은 없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 대담해졌다. 세상 사람들의 악행이 거의 그들의 죄악의 분량을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파괴자가 그 위에 자기 뜻을 행하도록 허락하실 지점에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꾸고, 성경의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단지 인간의 권위로 높이는 일은 이 극의 최후의 막이다. 이 대체가 보편화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위엄 가운데 일어나 땅을 심히 흔드실 것이다. 그분은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하실 것이며, 땅은 그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죽임당한 자들을 덮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대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 닥칠 것이다. 곧 불과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과 유혈사태다. 우리는 이 시기에 크고도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자비의 천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는 은밀히,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해는 하늘에서 빛나며 늘 하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심고 건축하며, 장가들고 시집보낸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판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치며 가장 높은 자리를 다툰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 도박장에 몰려든다.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지만, 은혜의 시간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고,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그는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그날까지 속임을 당하고, 미혹되고, 분주하게 얽매이고, 낯을 잃도록 자기의 모든 세력을 총동원했다.

죄악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혼란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류에게 큰 공포가 닥칠 것이다. 끝이 매우 가깝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곧 전 세계를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덮칠 일에 대비해야 한다.

죄악이 만연한 이때 우리는 마지막 대위기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역이 거의 보편화되고, 그분의 백성이 동료 인간들에게 억압과 고난을 당할 때, 주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는 중대하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턱에 서 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하고

있다. 전쟁이 있으며 전쟁의 소문도 있다. 민족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사건들이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날을 가져오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러나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교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사망의 바람이 불들려 있다. 그때 지상의 권세들이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 그들의 세력을 결집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봉사, 50, 51.